

브라질, 2003/04년도 곡물생산 전망

브라질의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는 지난 2월말 2003/04년도의 주요 곡물생산상황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생산상황조사는 한 농업연도의 식부에서 수확에 이르는 기간에 5~6차례 정도 실시하며, 이번에는 2월 초 주요 생산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당해 농업연도의 수확 직전에 이루어져, 생산상황을 전망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로드리게즈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CONAB의 발표에 앞서 “2003/04년도 주요 곡물생산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전년도보다 높은 기록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한다.

1. 곡물생산량은 기록경신 전망

주요 14개 품목의 식부면적은 전년도보다 7.0%(306만ha) 증가한 4,701만 ha, 생산량은 6.2%(766만톤) 증가한 1억 3,083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하절기에 수확되기 시작한 작물(하기작(夏期作))의 식부면적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하기작 생산량 및 향후 식부될 동절기 수확작물(동기작(冬期作))은 앞으로의 기상조건에 따라 식부면적과 생산량 전망은 수정하게 된다. 참고로 이번 생산량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ha 당 수확량을 생산면적에 곱해서 산출하였다.

주요 생산지역의 기상 현황으로서 중서부, 남서부, 남부지역은 12월에는 고온 건조하고, 금년 1월에는 높은 강수량을 보이는 등 1기작(하기작) 옥수

수와 대두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지만, 2월 들어 강우상황은 예년수준을 회복해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또한 북동부는 12월 강수량 부족으로 식부가 늦어지는 지역도 있었으나 1월에는 비가 내려 기호조건은 양호했다.

2.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2.2% 감소

옥수수 생산면적은 전년도의 1,323만 ha보다 0.6% 감소한 1,315만 ha, 그리고 생산량은 전년도의 4,741만톤에서 2.2% 감소한 4,63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1기작(하기작)의 식부면적은 대두 재배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966만ha에서 1.9%감소한 948만ha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생산지대인 남부지역에서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ha 당 수확량이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도의 3,461만톤에서 2.6% 감소한 3,373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배에 적합한 날씨가 계속된 북동부는 ha 당 수확량이 전년도 대비 5.6% 증가함으로써 생산량은 전년도의 302만톤에서 7.6% 증가한 325만톤이 될 것이라고 CONAB는 예측하고, 향후 북동부의 자급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하였다.

또한 2기작(동기작) 식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①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맥의 식부전환, ②세계적 재고감소에 의한 국제가격 상승, ③계속적인 수출지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고려하여 식부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367만 ha가 되지만, ha당 수확량은 기후 조건 악화를 상정하여 전년대비 4.3%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1,262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대두생산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대두 생산면적은 전년도의 1,848만 ha보다 14.0% 증가한 2,107만 ha, 생산량은 전년도의 5,203만톤보다 10.8% 증가한 5,76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NAB에 따르면, 생산면적 증가분(259만 ha) 중에서 55%는 쌀, 15%가 1기작 옥수수에서의 식부변경, 20%가 목초지에서 전환되었고, 나머지 10%는 토지개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①주요 생산지대인 남부에서는 오랜 건조의 영향으로 ha당 지역평균수확량이 전년도보다 6.1% 감소, ②중서부에 위치하여 국내 4위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고이아스주와 북부 및 북동부 등에서는 병충해 발생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생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CONAB는, 국제적으로는 ①세계경제 회복과 ②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복구 등에 의한 중동국가들의 식용유 수요증가, 국제적으로는 ③아시아, 미국 지역의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요가 높아져, 사료가 되는 대두박과 옥수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이후 남부지역에서 건조가 계속되고, 중서부지역의 매트그로소도슬주에서는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등은 이번 조사결과보다도 생산량이 상당량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자료 : <http://alic.lin.go.jp>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